

자기소개서

배움과 개선을 멈추지않는 책임감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지훈입니다.



연락처 : 010-5664-5041
이메일 : wlgns6921@gmail.com
깃허브 : <https://github.com/wlgns5041>

1. 지원 동기

“사용자가 직접 경험하는 가치를 만드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웹은 서비스의 첫 인상이며, 일상 속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UI/UX를 통해 직접적인 만족을 전달할 수 있고, 웹 사이트마다 각기 다른 컨셉과 사용 경험을 만드는 과정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한, 백엔드 개발자, 디자이너 등 동료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람을 좋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성향과 잘 맞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프론트엔드 생태계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배움을 요구합니다. 저 역시도, 자바스크립트 기반 프로젝트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나 불편함을 타입스크립트를 통해 해결하며 안정성과 효율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 CSS에서 Tailwind로 전환하며 UI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편리한 경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들을 탐구하고 적용하여 눈에 띄는 개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높은 흥미를 가졌습니다.

아직 경험은 부족할 수 있지만,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와 꾸준한 탐구,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무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과 요구를 통해 탄탄한 역량을 쌓는, 함께 성장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2. 역량 및 프로젝트 경험

“작은 개선을 통해 큰 사용자 경험을 만든다”

‘PETORY’ 프로젝트에서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사용자 흐름을 고려한 기능 구현을 경험했습니다. 컴포넌트 구조 분리, 상태 관리, 인증 구조, 에러 처리 등 서비스의 기본적인 동작을 직접 설계하고 적용하며 프론트엔드 개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React Query를 통해 불필요한 네트워크 요청을 줄이고 화면 응답 속도를 개선하며, 작은 기술적 개선이 곧 사용자 경험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또한 AWS 환경에서 Nginx 기반 서비스 배포와 Docker를 활용한 자동 배포 파이프라인에 참여하며 서비스 운영과 배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함께 넓힐 수 있었습니다.

개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에서는 React, TypeScript, Tailwind를 기반으로 UI 컴포넌트를 구조화하고 코드 스플리팅과 지연 로딩 등을 적용해 초기 로딩 속도와 렌더링 성능을 최적화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서비스에 바로 적용하여 개선 효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큰 성취를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 오히려 큰 설렘을 느끼며, 사용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배우고 개선하겠습니다.

3. 문제 해결 경험

“해결할 때 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

개발자로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제게 가장 큰 동기이자 개발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문제를 마주하면 해결할 때까지 고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계속 떠올리고, 관련 문헌과 발달된 AI 도구를 적극 활용하며 실마리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페이지 로딩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지, 애니메이션 등 무거운 리소스가 많고 초기 API 요청이 복잡하다 보니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를 React Query로 개선했습니다. 캐싱과 상태 관리 자동화를 통해 불필요한 API 호출을 약 70~80% 감소, 두 번째 이후 접근 시 로딩 시간을 거의 35~40ms 수준으로 단축시키며, 수치로 확인 가능한 개선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반응형 구현 과정에서는 Chrome, Safari, 네이버 앱 브라우저 등 환경마다 주소창 노출 방식이 달라 동일한 레이아웃이 기기별로 일부 잘리거나 과도한 빈 공간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브라우저의 뷰포트 동작을 비교 분석하고, CSS 변수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동적 높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인 UI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경험은 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더 나은 결과를 향해 계속 도전하고 탐구하게 만듭니다.

4. 협업 경험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

“팀의 성공을 위해, 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프론트엔드를 전담하며 기능 구현뿐만 아니라 백엔드와의 데이터 구조 협의, 예외 처리 방식 등 서비스 전반의 흐름을 먼저 고려해 제안하고 조율해 왔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이를 개선의 기회로 여기며 더 나은 방향을 함께 탐색했습니다.

특히 프론트에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면,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팀 전체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도, 단순히 제 의견을 관철시키기보다는 팀원의 관점과 어려움을 먼저 이해한 뒤,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도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제안하며 협업의 연결고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협업을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닌, 팀의 성과를 함께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먼저 움직이고, 함께 나아가며 팀에 신뢰를 주는 개발자로 성장하겠습니다.

5. 입사 후 포부 및 목표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로 성장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프론트엔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는 자세는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는 회사의 서비스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반응형 UI, 성능 최적화, 접근성과 같은 기본기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팀 내 코드 품질과 협업 효율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 요구 사항을 단순히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일을 먼저 찾아 실행하며 팀에 신뢰를 주는 개발자가 되고자 합니다. 팀원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먼저 움직여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작은 개선을 통해 큰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개발자로서, 팀과 함께 성장하고 회사의 서비스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